

교회소식

◆ 광고

1. 오늘 2부 예배 후 임시제직회 모입니다.
2. 오늘 오후 예배는 7, 8, 9여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3.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7, 8, 9여전도회 연합찬양대입니다(연습 2시, 소망관).
4. 효도관광을 위해 기도과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 캄보디아 단기의료선교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①일시 : 2015년 1월 19~26일 ②참가비 : 학생 90만원, 장년 100만원
③모집기간 : 10월 5일~ 10월 19일까지(항공권 사정상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최영준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오늘 2부 예배후 계획되었던 전교인 노방전도는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김희경, 이정숙, 김연태, 김명숙, 함현숙, 이해련
- 식사대접 : 유병성 성도, 딸 결혼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결혼 : 이성중(신선화) 집사 차남 이상모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① 일시 : 2014.10.25(토) 오후 1시 ② 장소 : 대전오페라웨딩홀 베일리홀(1층)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 소천 : 원용국 장로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4.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 4여전도회	남1, 2목장	제8여전도회	각 목장별로	수요일 오전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10월 행사

- 5일 : 신일비전헌신예배, 정기제직회
- 12일 : 각 기관 월례회, 정기가을노회(13~14)
- 19일 : 제7, 8, 9여전도회 헌신예배
- 26일 : 정기당회, 종교개혁주일, SFC주일

◆ 10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 10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억, 이진석, 곽복남, 이정자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 소	전 화	소속기관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85장(구85장)
새309장(구409장)
당신이 지쳐서 기도 할 수 없고

기 도 1부/남동균 장로
2부/안재경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고린도후서 1:8~11(신 P186)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

기 도 설교자

찬 송 새337장(구363장) :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원용국 장로
2부 / 김명권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제7·8·9 여전도회 헌신예배

오후 3시 인도 김 성 원 회장
설교 최사무엘 목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조수정 회장

성경말씀 인도자

학개 2:1~9(구 P1311)

찬 양 제7·8·9여전도회

말씀선포 설교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찬 양 ... 새93장(구93장) ... 다같이

헌금기도 김혜정 회장

광 고 인도자

축 도 설교자

✚ 다음주 기도/ 박진우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00 인도 최 영 준 목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새258장(구190장) ... 다같이

기 도 김성옥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마태복음 5:3~12(신 P5)

말씀선포 설교자

애동하는 자의 행복

목장찬양 남1, 2 목장

축 도 인도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남3, 4 목장

✚ 다음주 기도 / 박은정 집사

Since. 1978

No 42. 2014. 10. 19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교회를 섬기는 분◆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옥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옥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 등 부 오후 예 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희,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터넷방송, 필리핀 추수선학교/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눌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뽕엘교회/창원 군인교회, 힐평교회/김해
- 학원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이정은 김예정
-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생드롭인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김숙현, 김재희, 노시래(구남량), 박근웅(최원자), 박남수, 박영숙B, 박유연, 박채리, 손승희, 신동명(강경숙), 안주모(조양순), 우우원, 윤석운(박경숙), 오성엽(김신혜), 윤호식(주정주), 이문희, 이선환, 이승민(엄서운), 이영일(홍은미), 이윤희(최필자), 정재화(김덕연), 전민규, 정홍재(김수희), 조남년, 최숙자, 함두수(곽정자)

✦ 감사헌금

강철원(이지영), 강춘자, 김금보, 김명권(정영주), 김재홍(한영자), 김종남, 김진온(김남주), 노시래(구남량), 박기철(송상미),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영숙A, 박은정, 박진우(김해정), 박해진, 성형건(윤송희), 소재혁(김미하), 손승희, 안재경(정은숙), 안주모(조양순), 양문주(권유순), 오성엽(김영희), 우성환(정해민), 원웅국(김복근), 윤성욱(김신혜), 윤호식(주정주), 이상균(강상희), 이상자, 이승민(엄서운), 정재화(김덕연), 정기훈(최연옥), 정인택(이정숙), 정재안, 정태수(김정희), 정홍재(김수희), 조남년, 최영준(한은정), 한영실, 함두수(곽정자)

✦ 선교헌금

강일창(고숙자), 김영순A, 김재희, 노시래(구남량), 박순국(조수정), 박영숙A, 박해진, 안주모(조양순), 유진숙, 윤호식(주정주), 이승민(엄서운), 전민규, 정홍재(김수희), 조남년, 최숙자

✦ 일천번제헌금

강해성, 남동균(윤현옥), 남용민, 안스디자인, 안영원(영인/해린), 안재경, 양문주(권유순), 이승민(엄서운), 이영일(홍은미), 이재현(리하), 정은숙(소연/진형/진성), 정옥근(이경미)

✦ 목적헌금

김종남

✦ 비전헌금

강춘자, 노시래(구남량), 손승희, 임기준(성영옥), 우호선(김순자), 윤호식(주정주), 이영일(홍은미), 정홍재(김수희), 조남년

목장현황

2014. 10. 06~10. 12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 회	4	23,000	10	교 회	03초원	5 김채욱	교 회				교 회
	2 강일창	교 회	4	14,000	100	교 회		6 고숙자	교 회				교 회
남2초원	3 박근웅	교 회				교 회	04초원	7 광복님	교 회				교 회
	4 김명권	교 회				교 회		8 성영옥	교 회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균	교 회	1	5,000	63	교 회	05초원	9 구남량	교 회	3	9,000	15	교 회
	6 안재경	교 회	1	5,000	30	교 회		10 정해민	교 회				교 회
남4초원	7 오성엽	교 회	2	5,000		교 회	06초원	11 함현숙	교 회	1	5,000	10	교 회
	8 박순국	교 회	3	5,000	3	교 회		12 김복근	교 회	1	5,000	50	교 회
남5초원	9 조성철	교 회	1	5,000	6	교 회	07초원	13 정옥자	교 회	2		20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2	8,000	50	교 회
02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3	13,000	110	교 회	08초원	15 신윤경	교 회	1	10,000	21	교 회
	2 김명숙	교 회	3	15,000	100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2	10,000	5	교 회
0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4	13,000	126	교 회	09초원	17 한은정	교 회	3	4,000	48	교 회
	4 정채순	교 회	3	10,000	120	교 회		18 서남지	교 회	5	5,000	20	교 회

금주의 말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

고린도후서1:8~11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역경을 헤쳐 나가는 한 인물을 봅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8절에서 9절 3번 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으나 절망 속에 빠지지 않는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까요?

1. 고난은 누구나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우리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태풍 지진 기동 홍수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나, 둘째 윤리적인 타락이나 자지른 죄악과 같은 개인적인 죄 때문에 그에게 사랑과 절망과 같은 고통과 고난이 일어납니다. 셋째 나라와 사회, 혹은 다른 사람의 집단적인 죄악이나 살수로 고통 고난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 에 고난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만-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고난은 어디에 있습니다.' 나 혼자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생각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다리고 고난이 없는 세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사회가 미래 지향적인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아픔을 표현하고 그 이야기 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파낸 이규 태씨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인이 이것을 잘못하는 원인이 남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고자 하는 속이 은폐의식이 발달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가 당한 어려움을 조금도 은폐하지 않고 솔직히 털어놓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그는 자기 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 난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 졌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심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9장의 온장색 데메트리오 사건 때 받은 어려움이거나 아니면 그가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고린도전서15:32에서 맹수와 싸워야 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 경험한 절망감이 아니었을까 추측하 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는 이런 절망감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과 고백이 건강한 것입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은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절망감을 은폐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절망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 우리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본문 9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훈련임을 강조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사형선고 같은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은 세상의 모든 성공 조건을 갖추고 살던 자입니다. 최고의 활동에, 학벌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춘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떠날 정도를 대언했습니다. 그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름 되면 그가 얼마나 교인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혹독한 인생의 고난의 가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도 몹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이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족하다." (고후12:10)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연약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그 때가 강함이라"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고난은 바울 나 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은 저주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가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변경된 축복" 이라고 말합니다.

3.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할 때 이것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나? 14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 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허락 하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나니를 도와서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므로 사람의 도움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나는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가시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위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신이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기에,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살 소망까지 없 어진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게 만듭니다. 저들을 위하여 사랑의 관심과 손길을 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난 날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4:8-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썩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담담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 린바 되지 아니하며 가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사보면 절박한 문제를 만나고 온갖 아픔과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힘들고 외로울 때 나 혼자가 아픔 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방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주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 를 희망의 메신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